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6년 3월 20일(주일) 제1091호

2016 고난주간 심야예배

‘고난의 신비’

21~25일 오후 9시, 국내 10개 캠퍼스 본당
하루 한 끼 금식, 십자가 목걸이 걸기, 침묵기도

내일부터(21일) ‘2016 고난주간 심야예배’를 드린다.
고난주간인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오후 9시에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고난의 신비’를 주제로 ‘고난주간 심야예배’를 드린다.

고난주간 심야예배는 성서교독, 침묵기도, 말씀 선포, 합심기도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성금요일인 25일 예배에서는 가상철언 낭독, 촛불 세리모니, 성만찬 등이 거행될 예정이다. 설교는 21일과 22일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담임), 23일과 24일 이한영 교수(아세아연합 신학대학 구약학), 25일 이재훈 담임목사가 한다. CGNTV는 고난주간 심야예배 실황을 전 세계에 생중계 한다.

고난주간 동안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행동지침도 정해졌다. 이 기간 동안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가급적 오후 6시 이후 모임을 삼가고, 고난주간 심야예배에 참석해야 한다. 또한 미디어나 하루 한 끼를 금식해야 한다. 고난주간 심야예배를 드릴 때에는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예배시작 전후에 침묵기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

온누리교회는 2012년부터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四旬節, Lent) 기간에 고난주간 심야예배를 드리고 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주일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부활을 묵상하고, 회개하는 절기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기획_ 웃으로 본 예수님의 생애 묵상 4-5면 기고_ 체벌은 사랑의 매가 아니다 8면 인물_ 만나고 싶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캐스터 고유진 9면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온누리교회

“그 아이들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고창 행복원에 재능기부, 악기 후원, 재정지원을

본지에서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역, 기독교 기관 및 단체, 이웃들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일곱 번째 주인공은 전라북도 고창에 있는 아동보호 시설 ‘행복원’이다. 지난 14일 꿈꾸는 행복원 아이들을 만나고 왔다.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

행복원 문을 여니 동요가 들렸다. 지금은 행복원 아이들이 학교나 유치원에 가 있을 시간인데 누가 부르는 것일까?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동요소리를 따라갔다. 식당에서 동요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행복원 막내 소영이(가명)가 흥겹게 동요를 부르고, 행복원 직원들이 박수를 치면서 듣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이 참 행복해 보였다. 아직 유치원에 갈 나이가 안 된 소영이는 행복원 직원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언니 오빠들을 기다리고 있다. 행복원에는 세 살 소영이부터 고등학교 3학년 광호(가명)까지 40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다.

아동보호시설 ‘행복원’ 아이들

행복원은 고아원이 아니다. 부모가 정상적으로 자녀를 보호하기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보호시설이다. 일종의 기숙사다. 0세부터 18세까지 행복원에서 생활할 수 있다. 부모의 이혼, 학대, 방임, 질병, 경제적 어려움 등 아이들이 행복원에 오는 이유는 다양하다.

아이들은 행복원에서 부족한 것이 생활하고 있다. 급식비를 내지 못해 찢쩍맨 일도 없고, 다 떨어진 신발을 신을 필요도 없다. 더 이상 혼자라고 외로워 할 일도 없다. 행복원에서 의식주를 지원해준다. 무려 40명이나 되는 형제 자매가 생기기 때문에 외롭지도 않다. 내 집처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숙소도 가정집처럼 꾸몄다. 한방에 6~7명씩 생활하는데 아이들이 부대끼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

행복원 시설은 여타 기관 보다 좋은 편이다. 숙소도 신축한지 8년 밖에 되지 않았고, 도서관과 공부방도 있다. 행복원이 좋은 이유는 또 있다. 아이들을 위한 교회가 있다. 행복원 1대 원장 이조순 권사가 아이들을 위해 사랑의 교회를 세웠다. 아이들은 기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교회에 간다. 교회는 아이들에게 좋은 놀이터가 된다. 성인 성도 하나 없는 사랑의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어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뛰놀 수 있다.

교회를 내 집처럼 드나드는 아이들의 신앙도 단단하다. 예배 출석률이 무려 100%다. 브라스밴드를 조직해 공연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있다. 행복원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음 한편이 허전할 때가 있다. 한창 부모의 품에서 자라야 할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제아무리 좋은 시설과 안정적인 의식주가 제공된다



지난해 아웃리치에서 행복원 아이들과 Point5공동체.

(사진제공: Point5공동체)

고 해도 부모의 부재를 메우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 아이들에게는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 온누리교회 Point5공동체가 행복원 아이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고 있다. 관심을 갖고, 사랑을 쏟고 있다.

“온누리교회 형, 누나들처럼”

Point5공동체와 행복원의 인연은 2010년 미국에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미국 유학생들과 몇몇 한인들이 ‘고향의 아이들을 섬기자’면서 고창 행복원을 방문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당시 행복원을 방문한 일행 중에는 정재륜 목사님과 Point5공동체 성도들도 몇몇 있었다. 그

했지만 행복원 아이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더 값진 결실이었다.

Point5공동체 아웃리치팀원과 행복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정을 주고받았는지 모른다. 아이들이 다시 한 번 Point5공동체 아웃리치팀원들을 보고 싶다고 아우성이었다. Point5공동체 아웃리치 팀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다음해 여름까지 기다리기 힘들어 그해 겨울 행복원을 다시 방문했다. 아이들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눴다. 대학생활, 직장생활 등 평범한 일상을 나누고, 아이들의 고민도 들어줬다.

“아이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행동과 말투가 달라보게 부드러워졌습니다. 특히 진로와 미래계획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행복원 직원들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대학교도 다니고, 유학도 가보고 싶습니다.”

민구는 박 원장이 수없이 복학을 권유해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던 아이였다. 민구가 달라졌다. 지금 민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외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변한 것은 민구 뿐만 아니다. 많은 아이들이 꿈을 꾸고, 대학교에 진학하고 있다.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아이들은 자격증을 취득해 취업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열매들 덕분에 Point5공동체와 행복원 아이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전망이다. Point5공동체는 아이들을 더 자주, 더 가까이 가서 섬기고 싶어 고창 행복원을 1다락방 1사역지 기관으로 선정했다.

고창 행복원 이렇게 돕자

행복원 아이들은 온누리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한다. 행복원 아이들을 초청해 온누리교회 소개도 해주고, 서울구경도 시켜주면 정말 좋겠다. 또한 행복원 아이들을 섬겨 줄 심리상담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도 필요하다. 행복원 직원들이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상담실과 놀이, 모래, 미술치료실을 꾸며주고 싶은데 전문가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리상담 전문가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행복원 브라스밴드에 악기를 기부하는 것도 좋다. 몇몇 악기들이 낡고 고장 나서 악기가 부족한 실정이다. 사용하지 않는 금관악기, 피아노, 키보드가 있다면 행복원 브라스밴드에 기부하면 좋겠다. 행복원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는 것도 좋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가정의 달 5월에 그 아이들의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주자.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후원문의: 고창 행복원(063-564-2150)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서로를 그린 그림을 들고 활짝 웃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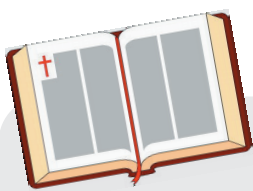
들이 한국에 온 뒤에도 꾸준히 행복원을 방문했다. 2014년부터는 Point5공동체 공식 아웃리치를 행복원으로 가고 있다.

유학생들이 많은 공동체의 장점을 살려 2014년 아웃리치에서는 영어캠프를 열었다. 아웃리치 몇 달 전부터 꼼꼼하게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그런데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경계심이 강한 아이들이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보다 정(情)이었다. 아웃리치팀은 당장 친교 위주로 아웃리치 프로그램 일정을 변경했다. 비록 계획한대로 아웃리치를 진행하지는 못

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쉽게 변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Point5공동체의 섬김이 아이들을 변화시켰다. 그렇다고 대단한 프로그램과 상담을 진행한 것도 아니다. 서로를 섬기고, 아이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것뿐인데 값진 결실을 맺었다. 자신들이 겪었던 어려운 일을 신앙으로 이겨낸 간증, 유학생, 직장생활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자극이 된 것이다. 음악을 하겠다며 고등학교를 자퇴했던 민구(가명)도 달라졌다. 민구가 박지환 원장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온누리교회 형 누나들을 보고 중간에 포기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감옥이 열리고 구원이 임하다

사도행전 16:25~34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사건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본문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 잊을 수 없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가장 잊히지 않는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이 사건을 뽑았을 것입니다. 누가 이 사건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잊히지 않는 감동적인 사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겔으로 사도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여행 중에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이 베푸어주시는 기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넣었던 간수가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진정 갇힌 자는 감옥 안에 있었던 사도 바울과 실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유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어떤 환경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 어떤 상황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진짜 갇혀있던 사람은 감옥을 관리하던 간수였습니다.

어떠한 방해와 핍박도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대조 되는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방해와 핍박도 복음의 능력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 복음이 전해질 때 어둠에 속한 악한 영들과 사람들이 얼마나 반항하고, 대적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났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은 점치는 일을 통해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여다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영혼은 마치 비어있는 집과 같아서 악한 영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영혼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진공상태의 영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도, 악한 영도 섬기지 않아”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중립상태의 영혼은 없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섬기고, 의존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영혼은 우상을 섬기게 되고, 악한 영에 사로잡힐 위험이 큼니다. 그 여종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귀신도 알아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믿는 것,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귀

신도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아는 것이 올바르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과 믿고 순종하는 것이 별개일 수 있습니다. 많이 알고도 안 믿을 수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사도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교묘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하는 이가 귀신 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훼손되고, 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귀신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복음을 듣고, 변화되면 당연히 아는 내용입니다. 귀신이 알려줘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묘한 방해전략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가련한 한 소녀의 인생을 사냥하고, 지배하던 악한 영이 예수님의 권세에 의해 추방되었습니다. 악한 영이 떠나자 또 다른 저항세력이 나타났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온전해지자 그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 거짓으로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고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과 너무나도 동일합니다. 그들은 겔으로 법을 이용했지만 마음에 악한 동기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 간 사도 바울과 실라

“바울과 실라를 로마 관리들 앞에 데려다 놓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으로서 우리 도시에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실행할 수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여 있던 사람들도 가세해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자 로마 관리들은 그들의 옷을 벗기고 매질하라고 명령했습니다”(행 16:20~22).

가장 먼저 권력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몇 가지 교묘한 전략이 숨어있습니다. 유대사람들을 강조하면서 인종적 편견, 인종적 자만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의 자만심을 자극해서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악한 영들이 교묘하게 정치권력자들을 이용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로마 관리들에 의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진 이유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선한 일을 하고도 악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세 영역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연합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첫째, 거짓으로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입니다. 둘째, 거짓된 정보에 쉽게 넘어가는 비겁하고, 비양심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셋째, 편견에 사로잡혀서 군중심리에 쉽게 넘어가는 무지한 대중들과 비겁하고 거짓 정보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매질하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여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유대지도자들의 거짓 고소가 있었고, 본디 오 빌라도와 헤롯의 비겁하고 비양심적인 결정이 있었고, 지극히 선하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지한 대중들이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 사건도 비슷합니다.

그날 밤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합니다. 어둠에 갇혀서 살아가는 이들의 이익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를 거짓된 말로 왜곡합니다.

예수님이 비겁하고,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의해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불의함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삼일 만에 부활하셔서 능력을 보여주셨듯이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대반전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는 육신은 매여있어도 복음은 매여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육신이 매여있을 때 더욱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25~26절).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지금 편안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찬송한 것이 아닙니다. 심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후에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당시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를 고백했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채찍으로 맞았을 것입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 흘린 그 몸으로 어두운 지하 감옥에 던져진 그 밤,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신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원통함을 호소하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불의한 자들에 대한 원망의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기도소리였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면 저절로 기도가 터져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가 흘러나오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의 입술에서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을 불의하게 감옥에 집어 넣은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찬송도 했습니다. 찬송은 기도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요청이었을 것이고, 찬송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높여드린다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하박국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아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는 찬송이었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

사도 바울과 실라는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죄수들이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생명력의 최고봉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영적생활의 최고 영역입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예수님이 찬송했다는 구절이 복음서에서 딱 한 구절 나옵니다. “제자들과 함께 찬송하시니”라는 구절이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올라가 시며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여정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을 때 찬송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고난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가운데 찬송한다는 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내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주지 않을지라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에 하라는 것입니다.

(13면에 계속)

기획-고난주간과 부활절

1. 옷으로 본 예수님의 생애 묵상
2. 십자가와 복음

옷으로 본 예수님의

주님의 옷은 능력, 영광, 죽음을 이김, 칭의, 성화, 부활 뜻해
성도는 주님의 옷으로 이 땅을 덮어 치유의 역사 이루어 가야



최원준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3가지를 흔히 ‘의식주’라고 한다. 먹는 문제나 집보다 옷이 가장 먼저 나온 이유가 뭘까?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벌거벗은 채 태어나지만, 태어난 즉시 포대기로 싸이게 되는 것을 시작으로 일평생 심지어 죽어서까지 옷(수의)을 입기 때문이 아닐까. 사람은 매일 옷을 입는다. 잘 때도 옷을 입고 잔다. 왜 옷을 입을까? 옷은 추위로부터 체온을 보호하고, 부끄러운 곳을 가려준다. 상복이 슬픔을 나타내 주듯이 옷은 마음을 표현하기도 한다. 또 옷은 사회적 신분이나 직업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렇게 옷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다.

성경은 옷의 일상적 의미를 활용해 신앙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지만 “네 의복이 해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츠지 아니하였느니라”(신 8:4)고 말했다. 40년을 입어도 해어지지 않는 옷이야말로 살아 입을 옷도 변변치 않았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놀랍게 지켜주셨는지를 보여준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여 전도하게 하실 때 돈주머니, 배낭, 신발, 그리고 여벌 옷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다(눅 9:3). 무소유의 전도였음에도 이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다(눅 22:35).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채워주신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형제가 헐벗은 것을 보고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의인’을 예비해 두셨다(마 25:35-40).

성경은 옷의 모티브를 활용하여 한 인물의 생애를 그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일생은 옷이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다. 이것은 라헬의 자녀인 요셉을 향한 야곱의

편애를 보여준다. 요셉을 미워한 형제들이 그의 옷을 벗긴 후 노예로 팔았다. 그리고 그의 옷에 염소의 피를 적서 야곱에게 가져가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거짓말을 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위해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변장해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이다. 애굽 왕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이 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는다. 그녀는 요셉과 정을 통하기 위해 강제로 요셉의 옷을 벗긴다. 요셉은 이를 뿌리치고 옷을 벗은 채 도망친다. 이 일로 인해 그는 억울하게 갇히게 된다. 그러다 바로가 꾸 꿈을 해몽하여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이때 바로는 요셉에게 인장 반지를 빼어 손에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준다. 이렇듯 창세기는 요셉이 옷을 입고 벗음이라는 매우 일상적인 모습을 통해 그의 고난과 꿈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과 말씀, 그리고 성도의 구원의 서정(칭의, 성화, 영화)을 ‘옷’의 관점에서 묵상했다.

능력 “옷에만 손을 대어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니라”(막 5:27-28).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이 있었다. 이 여인은 혈루증을 12년 동안이나 앓았다. 온갖 치료를 받아보았지만 헛수고였고, ‘많은’ 의원에 ‘많은’ 괴로움을 받을 뿐이었다. 심지어 병이 악화되었다. 그 어떤 사람도 그녀를 고칠 수 없었다. 또 당시 혈루증은 부정한 병으로 규정되었기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떨어져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토록 모진 인생을 살아온 이 여자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칭찬받았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막 5:34).

여자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바로 예수님이 나를 직접 바라보시며 말씀으로 치유하지 않더라도, 나를 직접 만지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를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믿음이 여인의 손으로 잡은 예수님의 옷에 전해졌고, 옷을 잡은 여인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전해졌던 것이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진 것일까. 이후에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가셨을 때도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간청했고, 손을 대는 자는 다 치유되었다(막 6:56). 바울도 그의 몸(옷)에 닿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환자에게 대면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다(행 19:12). 엘리사도 엘리야의 겹옷으로 요단강을 가르는데 행했다. 주님의 옷은 능력이다. 오늘날 여인의 믿음으로 주님의 옷을 잡는 자들이 치유될 것이다. 성도는 주님의 옷으로 이 땅을 덮어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할 것이다.

영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옛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시니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뵈려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막 9:2-3).

예수님이 3명의 제자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변형되신 일이 있었다. 주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 옷에서 광채가 났는데 이 세상의 세탁업자가 할 수 없을 만큼 옷이 매우 희게 되었다. 성경에서 빛나는 옷을 입는 존재는 대개 천사들이다(마 28:3, 눅 24:4, 행 10:30). 그러나 천사를 뛰어넘어 변모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셨다. 이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변모하신 것을 ‘크신 위엄’, ‘지극히 큰 영광’, ‘존귀와 영광’으로 표현했다(벧후 1:16-18). 영광과 존귀가 충만히 임한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산은 거룩한 산이 될 수밖에 없다. 시내산도 마찬가지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산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

이사가야 본 환상도 그랬다(사 6:1-5). 이사가야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을 때 그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봤다. 그런데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거룩한 주님의 영광이 감싸고 있는 형국이다. 스랍들조차도 자신의 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린다. 그리고 찬양한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 거룩한 찬양에 문지방의 티가 요동한다. 또 성전에 연기가 충만했다. 연기는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서 사람들의 부정함을 가리는 역할을 한다. 충만한 거룩 앞에서 이사는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여찌할 줄 몰라한다. 주의 옷자락으로 덮이는 곳에 거룩송이 울려 퍼질 것이다.

굴욕 속 즉위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막 15:17, 20, 24).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혔고, 가시관을 엮어 씌웠다. 자색 옷은 왕이 입던 고급 옷을 말한다. 가시관은 왕관을 대신한 것이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왕처럼 대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로 조롱했고, 십자가에 걸린 명패도 ‘유대인의 왕’(막 15:26)이라고 기록됐다. 예수님을 모함하여 고발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역시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막 15:31-32)라고 조롱했다.

예수님의 수난 이야기는 예수님을 왕으로 조롱하는 이야기다. 신약학자 켈버(W.Kelber)는 ‘굴욕 속의 즉위’라고 표현했다.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의 대관식이다. 대관식은 화려하고 고상해야 한다. 모두가 왕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어야 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는 비록 초라했지만 제자들은 자기들의 겹옷을 벗어 예수님이 타실 나귀 등 위에 얹었다. 무리들도 겹옷을 벗어 길에 펼쳐 놓았으며,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았다. 그리고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마 21:8-9).

그러나 사악한 유대종교지도자들과 무지하고 강포한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대관식을 조롱과 굴욕으로 가득 채웠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여준다. 아, 예수님의 자색 옷은 그렇게 입혀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가장 거룩하고 엄숙하게 입혀져야 했다. 우리는 죄인이다.

죽음을 이기다 ‘세마포와 수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씻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판 곳에 찢던 대로 놓여 있더라”(요 20:6-7).

약 40여 년 전 프랑스의 한 잡지사가 저명인사 100명에게 물었다. 지구의 종말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지구 밖으로 보내서 보존해야 할 보

생애와 구원의 서정(序程)



카롤스펠트의 <숨은 아담과 이브>.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는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실 어린 양 예수를 예표한다.

물이 있다면 무엇이겠냐고. 1위가 예수님의 수의, 2위는 루브르박물관에 있는 밀로의 비너스 조각상이었다. 이탈리아 토리노 대성당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썼던 것으로 추측되는 세마포가 있다. 요한복음 20장 6~7절에 따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는 별도로 딴 곳에 썼던 대로 놓여 있었다고 되어 있다. 당시 상황을 자세히 보도하는 이유는 뭘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물증으로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닐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도둑이 시신을 훔쳐간 것이라면, 왜 세마포와 수건을 벗겨서 놔두고 갔겠는가. 게다가 수건은 썼던 대로 놓여 있었다.

세마포와 수건은 다른 중요한 의미도 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을 때 나사로는 수족을 베로 동인체로 나왔다. 그의 얼굴은 수건에 싸여 있었다.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 다르다. 그는 여전히 죽은 자에게 입히는 베를 입고 있었고, 수건이 얼굴에 있었다. 죽음에서 살아났으나 죽음의 그늘이 여전히 있는,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요 11:44)고 지시하신 것이다. 이에 반해 예수님은 시신에게 입히는 그 어떤 것도 걸치지 않은 채 살아나셨다. 또한 나사로는 결국 다시 죽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 예수님의 무덤에 있던 세마포와 수건은 죽음을 완전히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준다.

칭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

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갈 3:26-27).

아담과 하와가 범죄 하기 전에는 벌거벗은 채 살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은 범죄 한 후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했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부끄러운 곳을 가렸다. 무화과 나뭇잎은 톱니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제대로 가리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처럼 인간이 자기 죄를 덮기 위한 노력은 한계가 있고, 미봉책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범죄 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여기서 가죽옷(tunics of skin)은 무릎 혹은 발목까지 덮은 긴 옷을 말한다. 이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는 역할을 한다. 추울까봐 무화과 나뭇잎 대신 가죽옷을 입으신 것이 아니다. 레위기 7장 8절에 따르면 가죽은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린 제물이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말은 어떤 한 짐승이 죽었다는 말이다.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이 가죽옷의 재료가 된 짐승이 장차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어린 양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본다. 또 가죽옷을 ‘짓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셨을 때도 사용된 동사다. 가죽옷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활동하심을 보여준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은 메시아 예수님이 사탄을 정복할 것을 예언한 창세기 3장 15절과 더불어 ‘원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3:27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옷이 되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가 이들의 옷이 되어 주

신다. 아마도 바울은 당시에 세례(혹은 침례)를 받은 자들이 새 옷으로 갈아입는 의식을 염두에 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주신 그 가죽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입은 그리스도라는 옷은 우리의 허물을 가려 준다. 동화에 나오는 ‘벌거벗은 임금님’은 자신이 벌거벗은 줄 알면서도 마치 최고의 옷을 입은 것처럼 행세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랬다. 그러나 순수한 어린이의 눈에는 임금님이 벌거벗은 알몸이었다. 하나님의 눈앞에선 아무리 우리가 그럴듯한 옷을 입은 것처럼 행세해도 벌거벗은 몸일 뿐이다. 세상에 미혹되지 않길 바란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가려주는 옷이다.

옷은 신분을 나타낸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준 첫 번째 선물 역시 ‘제일 좋은 옷’이었다(눅 15:22). 이 옷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품꾼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다. 이사가 선지자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겹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사 61:10)고 찬양했다. 에스겔도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옷단장으로 설명했다. 왕이신 하나님은 어느 날 핏덩어리에 불과한 아기를 발견한다.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거둬주신다. 아기를 씻기고 당신의 옷으로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켰다. 또 수놓은 옷을 입히고 각종 패물로 장신구를 옷에 걸어주고 마침내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워 왕후의 지위에 올려놓으셨다(겔 16:6~13).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다. 그러나 이후 이스라엘은 자신을 왕후의 자리까지 높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한다. 지금 내 모습이 그렇다. 그래서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성화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날마다 옷을 갈아입는다. 때 묻은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듯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하나님은 마치 옷을 만드는 분처럼 새 사람을 지으신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을 만드신다. 금슬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만드셔서 입혀주신다(골 3: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 사람을 다시 입는다.

바울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롬 13:12)라고 말한다. 밤은 우리가 살아가는 패역한 이 시대다. 밤에는 어둠의 일을 한다. 낮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빛의 나라다. 성도는 더 이상 밤이 아니라 낮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낮에 입는 옷, 즉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갑옷은 전쟁에 나갈 때 입는 옷이다. 우리가 빛의 자녀지만 여전히 밤의 유혹이 있다는, 즉

영적전쟁 중이란 뜻이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엡 6:13)고 권면한다.

계시록은 성도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라고 말하고 있다.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혼인예식에 참여해야 마땅하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계 19:8).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여 정절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영광스런 옷이다. 144,000명 역시 성도들을 유혹하는 음녀와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을 지킨 자이다(계 14:4).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전투복을 입어야 한다. 그 전투복에 순교의 피를 묻힌다는 각오로 믿음을 지켜야 한다. 군인은 따로 수의를 입하지 않는다. 군인에게는 군복이 수의다. 군인은 목에 건 군번줄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묘비다. 그런 점에서 군인은 죽음을 입고 다니고, 묘비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 영적 전쟁을 치루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다. 충직한 군사로 살다 장렬하게 죽기를 소망한다. 주께서 친히 우리의 피 묻은 전투복을 벗기시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나 예복을 입지 않은 자처럼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마 22:10~14).

영화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전 15:53~54).

바울은 성도의 부활도 옷을 입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우리의 육신은 썩어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성도는 썩지 아니할 것, 곧 영적인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죽지 아니함, 즉 영원한 생명을 입게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4절에서는 ‘덧입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은 슈트를 입으면 평범한 사람에서 ‘강철 인간’으로 변한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착용 로봇이 나왔다. 이 로봇을 입으면 힘을 얻는다. 겹는 것이 자유로워진다. 인간의 문명이 그렇다면 우주의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몸, 영적인 몸은 얼마나 강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주님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빌 3:21)하실 것이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에 더욱 강력히 역사하길 기도한다.

* 지면 관계상 참고문헌은 언급하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싱글 형제를 모집합니다!

결혼매칭 프로그램 iWe, 31일까지 선착순 15명



iWe 요리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이 요리를 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청년들을 위한 결혼매칭 프로그램 'iWe'에서 남자지원자를 31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온누리교회에 등록된 1978년부터 1981년생 형

제다. 참가신청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메일(iweonnuri4u@gmail.com)로만 받는다. 선착순 15명, 회비 10만원이다. iWe 프로그램은 5월 7일부터 28

일까지 매주 토요일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iWe'는 교회에서 배우자를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나'를 '우리(We)'로 바꿔준다는 뜻으로 '둘이서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iWe 탐장 김순애 관사는 "좋은 만남이 성사돼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바라는 형제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독려했다.

iWe는 4주 동안 진행된다. 첫째 주에는 자기소개와 레크리에이션, 둘째 주에는 야외 데이트, 셋째 주에는 댄스와 퍼실리테이션(의사소통 능력 훈련), 넷째 주에는 파트너와 요리 데이트를 즐긴다. 서로의 성격을 파악하고, 최종 선택을 하게 된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간증

믿음의 모험을 마다하지 말아라



김영선 형제 (iWe 7기 수료자)

"내 짝도 어딘가에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영화 같은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iWe' 프로그램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하게 됐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내 짝을 찾아야 할까?"

물론 의심되는 마음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참여자 대부분이 청년부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이들이었다. 고민을 나누면서 서로를 알아갔다. 많은 부분을 공감할 수 있었고, 우려와는 달리 편안함이 느껴졌다. 놀이공원 데이트, 요리경연 대회,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했다. 나는 공동체 안에서 이성교제가 조

심스럽거나 사역에 매진하다 연애시기를 놓치고 있는 청년들에게 iWe 참가를 권하고 싶다. 세상에서 하는 소개팅은 기대와 다른 사람이나와서 실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iWe는 다르다. 온누리교회 안에서 동일한 비전, 동일한 신앙 색채를 가진 청년들을 만날 수 있다. 영적 친밀함이 가장 큰 장점이다.

나는 iWe를 통해 연애를 배우고 있다. iWe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도 등산과 영화 관람을 하면서 여럿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망설임으로 iWe를 시작했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선물로 받았다. 하나님은 분명 사람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한다. 우리의 몫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의 모험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아름다운 가정을 소망하는 싱글청년들에게 iWe를 다시 한번 권하고 싶다.



2000선교본부, 권역코디네이터 회의

전략적 '교회개척배가운동' 논의

2000선교본부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남아시아 F국에서 권역코디네이터 회의를 개최했다. 권역코디네이터는 TTM(두란노해외선교회) 소속 권역별 대표 선교사를 의미한다. 이번 권역코디네이터 회의에는 이재훈 담임목사, 2000선교 본부장 김홍주 목사, 선교

분과위원장 신현승 장로, TTM 소속 각 권역별 대표 선교사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선교사의 역량 강화(교회개척배가운동), 현장 팀 전략의 조직 멘토링, 지원 시스템 강화, 선교 동원, 융합선교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오카야마 기·도·제·목

- 3월21일(월) 러브소나타를 통해 일본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 3월22일(화) 실행위원들과 오카야마 교회들이 연합하고 협력하기를
- 3월23일(수) 전도대상자들의 마음이 열려 믿음으로 화답하기를
- 3월24일(목) 이재훈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구원의 열정을 부여주시길
- 3월25일(금) 모든 스태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준비할 수 있기를
- 3월26일(토) 행사장 오카야마 심포니홀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 3월27일(주일)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성령님께서 기쁨을 주시기를

베트남 온누리교회 특별집회

'예수바보교회로 일어나라'

베트남 온누리교회가 지난 2015년 10월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집회허가권 및 설교허가권을 받은 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특별집회를 개최했다.

3월 9일 열린 특별집회는 '베트남 온누리, 예수바보교회로 일어나라!'를 주제로 열렸다.

이번 특별집회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했다. 이재훈 목사는 "베트남 온누리교회가 신앙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교회, 성령님이 주관하는 교회

가 되길 바란다"면서 "시대에 맞춰 문화적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순교자들도 격려했다.

한편 이재훈 목사는 베트남 온누리교회 현지 파트너인 '똘당교회'도 방문했다. 그 자리에서 온누리교회와 베트남 현지교회는 베트남 선교를 위해 긴밀하게 동역하기로 약속했다.

/ 김영철 목사(베트남 온누리교회)

조대식 장로 장립예배



조대식 장로(마포공동체)

조대식 집사가 장로로 장립됐다. 지난 18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순형홀에서 조대식 장

로 장립예배를 드렸다. 캐나다 대사로 부름 받아 지난해 장로장립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조대식 장로를 배려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장로장립예배에는 이재훈 담임목사를 비롯한 교역자, 장로, 지인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조대식 장로에게 "순종하며 성도들이 본받을 수 있는 장로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조대식 장로는 "순종하고 섬기는 장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장로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서빙고 새가족 만남의 잔치

일시: 3월 27일 / 시간: 주일 오후 5:00 /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B2)
대상: 1월 10일 ~ 3월 12일 까지 새가족 8주 과정 수료자

가정사역	고양은평	동대문중앙	손재원	송하은	신용산	여의도	이수	정구철	S브릿지	윤지인
김철현	김왕수	손연희		양혜원	우상희	홍정희	노현주	허평희	공미경	이강은
	오재필		서빙고	정재욱	이동미		백애란		김근식	이미아
강서	한진태	동작	김남희	최재식	이수관	영등포구로		찬양사역	김은기	이오복
문 오		김소연	백성훈	하정은	이영재	강경옥		김은진	노보람	임주아
백경옥	관악금천	심성순	송윤구		홍조앤	김사진	권진희	민선혜	박경숙	정용욱
변기춘	Yale Han	한규람	이원희	성북	홍현태	이승연	김봉애	특별한초대	박준석	지선미
이상화	김나리	한수빈	최지유	김은영		이양경	박진희	황혜영	배정순	황광현
이아진	김병식		황순애	김정민	양천		이선영		송영경	
임정희	배은정	마포		남윤선	윤현경	용산	정만수	한강	신성완	
최화영		우희정	성동광진	박민예	임영애	배현선		유영삼	신현갑	
한규은	광명	한윤실	김경애	박성예	전태영	신동준		지용화	유성숙	
홍영준	김영선		김요섭	신현호	정현근	유혜연	일산		유소원	
홍현정	최신애	서대문	김형섭	원신희		전민철	김진애			
	최은혜	김정애	반월순	이문숙		최선이	이강인			

3월 세례자

■ 서빙고	이왕열 김소영	▷ 유아	장유근 이은하	김셋별 951230
공재철 630226	장민호 150314	강하윤 150105	장안나 140729	김수지 950103
이연순 630829	장현석 홍민정	강상안 김유정	장은철 우재연	박유진 960319
박진희 670515	진규민 141215	김라임 140403	최시연 150224	정태리 940418
신보람 870119	진재덕 박수현	김승환 김은혜	최요한 손윤희	SNS
최승만 710806	홍수아 140404	김라희 151210		김인선 880223
▷ 입교	홍민표 정윤정	김승환 장현주	■ 대학청년	배지혜 860130
박은진 920915		김지호 140828	하늘대학부	정하나 870405
▷ 유아	■ 양재	김승환 장현주	▷ 입교	▷ 입교
김민서 150313	권순기 740813	박재윤 150703	한승주 950328	마은희 900528
김형석 정지영	김인중 630731	박태준 김수연	김 선 971118	▷ 유아
박정준 140511	박경수 820825	엄주안 150211		송은우 150817
박제환 김윤미	이재환 800220	엄상훈 황진아	■ 허브대학부	송재호 김경란
신가는 141002	이정효 820920	이루다 150420	박효주 930206	양서준 150421
신민경 강현주	전아름 890207	이대원 김은민	박경주 960829	양도영 오세연
이소율 141120	▷ 입교	이 수 140415	이민석 960208	
이성준 천지애	안대일 780515	이종원 조영애	▷ 입교	
이재운 150324	최옥광 860321	장민호 140728	김다래 900515	

세대와 민족을 아울러 열방으로

Acts29 비전빌리지, 전인격적, 전문적 선교사 양성

Acts29 비전빌리지(Vision Village)는 선교사 훈련기관이다. 세대와 민족을 아울러 열방으로 보내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선교사훈련학교에는 단기선교사훈련학교(TP, Turing Point), 장기선교사훈련학교(OSOM, Onnuri School Of Mission), 본국선교사훈련학교(H2H, Home to Home)가 있다. 선교사들의 인격, 관계, 신앙 성숙에 초점을 맞춰 훈련하고 있다.

올해 1월까지 685명의 훈련생이 거쳐 간 단기선교사훈련학교에서는 선교지에 1~2년 동안 파송될 선교사들이 한 달 동안 훈련을 받는다. 지난해 12월까지 530명이 수료한 장기선교사훈련학교에서는 평생 선교사로 헌신할 성도들이 훈련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까지 152명이 훈련받은 본국선교사훈련학교에서는 안식년을 맞아 고국에 돌아온 온누리교회 파송 장기선교사들이 영과 육과 혼을 재충전하고 있다. 효율적인 복음전파를 위해 현지인 지도자를 훈련시키는 일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안열방예배를 드리고 있다. 열방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예배다.

한국교회와 세계선교의 교두보

Acts29 비전빌리지는 1995년 6월 8일 2천/1만 비전을 따라 ‘온누리이천일만훈련원’으로 개원했다. 2천/1만 비전은 2천 명의 선교사와 1만 명의 사역자를 파송한다는 것이다. 온누리이천일만훈련원은 2002년 전 세계에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를 세운다는 꿈을 꾸고 ‘온누리세계선교센터(OWMC)’로 거듭났다. 이때부터 장단기 선교훈련학교 등 본격적인 선교사 훈련학교가 시작됐다.

2003년 선포된 Acts29 비전을 이루기 위해 2010년 6월 ‘Acts29 비전빌리지’로 또 한 번 거듭났다. 현재 Acts29 비전빌리지는 한국교회와 세계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황중연 목사가 원장으로 섬기고 있다.

Acts29 비전빌리지는 다섯 가지 목표를 세워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장기선교사훈련학교(OSOM) 개회예배.

첫째, 온누리교회를 모판으로 삼는다. Acts29 비전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에 목숨을 건 사역자로 교육하고, 훈련시킨다. 둘째, 영성의 깊이를 더한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기도와 말씀, 건강한 공동체에 가치를 두는 선교훈련을 한다. 셋째, 지도자를 양성한다. 시대와 문화를 이끄는 글로컬(Glocal) 지도자로 훈련시킨다. 넷째,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 훈련을 한다. 예수님의 리더십을 본받아 섬기는 사역자로 훈련시킨다. 다섯째, 모자이크 선교훈련이다. 다양한 민족과 세대가 조화를 이루는 훈련을 말한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전인격적이고, 전문적인 선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선교사의 인격, 관계, 신앙 성숙의 장

Acts29 비전빌리지 중점 사역은 단기선교사훈련학교(TP, Turing Point), 장기선교사훈련학교(OSOM, Onnuri School Of Mission), 본국선교사훈련학교(H2H, Home to Home)이다. 이 세 가지 훈련에서 공통적으로 중점을 두는 사안이 있다. 바로 선교사들의 인격, 신앙, 관계다.

선교사들은 인격이 성숙해야 한다. 다른 사

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선교사는 예수님의 의로 산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기를 원하신다. 또 선교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친구가 되어 한다.

단기선교사훈련학교(TP)는 1~2년 동안 선교현장을 직접 체험하면서 선교사의 꿈과 방향을 바라보는 과정이다. 온누리교회 성도로 1년 이상 공동체 생활을 하면 단기선교사 훈련을 신청할 수 있다. 매년 2회 개강한다. 4주 동안 합숙훈련을 한다. 리서치 선교사를 양성하는 훈련이다.

장기선교사훈련학교(OSOM)는 평생 선교사로 헌신할 것을 결심한 성도들이 받는 과정이다. 매년 1회 열린다. 16주 동안 합숙훈련을 한다. 선교적 안목과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인적 선교사로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타문화권 교회개척, 전략 등에 대한 깊이 있는 강의를 듣는다. 설교훈련도 받는다. 현재 13가정과 싱글여성 6명이 훈련받고 있다.

본국선교사훈련학교(H2H)는 온누리교회 파송장기선교사로서 현장에서 4년 이상 사역한 선교사가 대상이다. 매년 여름 6주 동안 합숙하면서 재교육을 실시한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쉽다. 선교하느라 지친 몸을 자연 속에

서 쉬면서 회복한다. 그 다음으로 각자 한 시간동안 사역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한다. 말하고 듣는 가운데 정서적인 쉼과 회복을 얻게 된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안홀(Acts29 비전빌리지 1층)에서 ‘시안열방예배’를 드리고 있다. 시안열방예배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선지자 시므온과 안나의 이름 첫 자를 따서 명칭을 정했다. 시므온과 안나는 경건함으로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이다. 시안열방예배는 이 두 사람을 본받아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예배에 전념하고 있다. 골방에서 열방을 움직이는 무릎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언제든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시안홀을 24시간 개방하고 있다.

현지인 교회지도자를 세우는 일에도 힘쓰고 있다. 보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선교는 현지인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현재 일부 훈련이 영어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중국어, 아랍어, 일본어 등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하트스트림 등 외부 전문상담센터에 위탁해 선교사들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하용조 목사 기념도서관도 있다.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Acts29 비전빌리지는 민족과 나라를 넘어선 영성훈련장이다. 모든 훈련과정을 선교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의 영성을 갖춘 강사진이 진행하고 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선교사 훈련생 모집

단기선교사훈련학교(TP) 모집

마감 : 5월 29일까지
훈련기간 : 6월 20일~7월 16일

장기선교사훈련학교(OSOM) 모집

마감 : 2017년 1월 12일까지
훈련기간 : 2017년 2월 13일~6월 10일

본국선교사훈련학교(H2H) 모집

마감 : 5월 22일까지
훈련기간 : 7월 11일~8월 20일

칼럼



황중연 목사
(Acts29 비전빌리지 원장)

우리는 마치 밀 깨진 독과 같다. 그래서 항상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빠지는 속도보다 채워지는 속도가 늦기 때문이다.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자신을 바꾸려 해도 한계가 있다. 성령 충만을 위해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는 은혜가 채워지고, 랜잡아진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복잡한 삶에 다시 노출되면 실패감과 좌절감에 빠져

든다. 그렇기에 우리는 깊은 호수와 같은 주님 안에 잠겨야 한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들어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만지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매순간 주님 안에서 나를 묻고, 오늘을 물으며,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내어드리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느냐, 얼마나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느냐가 중요하다. 하나님 손 안에서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조건들을 맘껏 즐기고, 함께 있는 사람과 행복하게 보내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일

라. 어떤 일이든지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라. 이것은 단순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훈련과 사역에 임해야 한다. 지금 하나님 나라는 매우 시급하다.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세 번이나 하셨다. 왜 세 번 씩이나 반복하셨을까.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 예수님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의 일을 다 이루셨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한다. 또 예수님이 세 번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 ‘이제 내가 너를 믿는다’는 말씀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내가 미련한 방법 같지만 전도로 영혼을 구원하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너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믿음이다. 부르심이 있다면 거부하지 말고 도전해 보기를 바란다. 많은 선교사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있다. 나 또한 선교사로 살 때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많았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이 많았다. 그러나 선교사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단기선교나 아웃리치를 추천한다. 항상 영혼 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선교적인 삶을 살기를 응원한다.

체벌은 사랑의 매가 아니다!

자녀를 존중하는 권위 있는 부모가 되어야
교회, 학교, 지역, 기관의 지속적 관심과 성찰 시급

지난 12일, 7살 신원영군이 계모의 학대를 받다 숨진 사건이 보도돼 세상이 발각 뒤집혔다. 어디 이뿐인가. 20대 젊은 아버지가 태어난 지 2개월 된 아기가 시끄럽게 운다고 살해하고, 여중생 딸을 죽이고 시신을 방치한 아버지도 있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아동학대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올바른 훈육방법을 몰라서’가 가장 큰 영향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자녀를 어떻게 훈육해야 할까. 고등학교 교사이자 청소년사역 전문가 박상학 목사(강동 온누리교회)가 올바른 훈육방법에 대한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박상학 목사
(강동 차세대)

요즘은 뉴스 보기가 겁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잔인한 범죄가 눈을 질끈 감게 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때려죽이거나 온갖 엽기적인 방법으로 유기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5일 간이나 추운 옥실에 가두고 락스를 뿌리는 등 계모의 학대와 친부의 방관으로 7살 원영이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다. 그의 부모는 아이의 시신을 야간에 묻고, 책가방을 사는 행동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모 김씨가 게임 중독이라 할 만큼 게임에 빠져 있었다고 밝혔다. 새롭게 드러나는 행적이 그저 놀랍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3년 전 지역아동센터 상담사가 부모의 학대 사실을 알았지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이었다. 당시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없었다. 결국 그 끔찍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원영이는 그 어떤 저항도 못하고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아동은 한 인간으로서 고유한 존재다. 스스로가 권리의 주체임을 인식해야 한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고, 자신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원영이 같이 가정폭력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있다. 벗어나지 못하고 지옥 같은 집으로 다시 가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갖춰져 있어도 소

중복학대

중복학대란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동시에 이뤄지는 행위.

2.5배 증가

1,799건 (2006년) 4,814건 (2014년)

중한 생명을 잃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아동학대는 전국적으로 하루에 35건 꼴로 발생한다. 중복학대는 2006년대에 1,799건에서 2014년 기준 4,814건으로 8년 새 2.5배 이상 증가했다. 학대 가해자 10명 중에 8명이 부모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유교 가풍의 가부장적 문화와 남의 집 일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아는 사회적 무관심이 아동학대 범죄 증가의 주된 요인이다.

체벌은 육체적 고통, 교육 효과 없다

필자는 과거에 훈육이란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많이 맞고 자랐다. 거짓말을 하거나, 성적이 떨어지거나,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맞았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이다. 그 날도 시험성적이 좋지 않아 매질을 당했다. 당시 나는 전 과목에서 11개를 틀렸다. 그럼에도 아버지의 일방적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한 문제 당 10대씩, 총 110대를 빗자루로 맞았다. 내 종아리는 터지고, 피가 흘렀다. 아버지는 방문을 잠가 놓고 110대를 다 때리셨다. 그 날 이후 필자는 어린데 매 안 맞고 자라는 친구들이 가장 부러웠다. 나보다 잘 하는 것이 별로 없는 친구인데도 부모님께 맞지 않는 친구가 부러웠던 기억이 난다.

훈육은 의지나 감정의 함양, 바람직한 인격 형성을 돕는 교육이다. 체벌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지만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 행위다. 체벌은 아동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필자는 체벌을 당한 이후 아버지에게 맞지 않기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억제 했을까? 아니다. 그저 시험은 무서운 것이고, 학교는 내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원흉으로밖에 인식할 수 없었다.

많은 이들이 체벌을 훈육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체벌을 ‘잘 되라고 때리는 것’, ‘사

랑의 매’라고 합리화한다. 그러나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체벌은 그저 무서운 행위일 뿐이다. 결국 아동이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선택이 그 행위의 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체벌은 육체적 고통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여부에 의해 좌우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진정한 교육적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중한 요청, 나 전달법, 보상, 논리적 결과

필자는 이 글에서 올바른 훈육에 대해 제안하려고 한다.

첫째, 아이에게 정중히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훈육은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 아동과 긍정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다면 굳이 엄격한 훈육이 필요 없다.

둘째, ‘나 전달법’으로 말해야 한다. 정중한 요청을 해도 아동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조용하나 단호한 목소리로 해야 효과적이다. ‘나 전달법’은 언성은 높이지 않되, 문제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 부모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화가 났다”는 표현보다는 “속이 상하다” 또는 “걱정된다”, “피곤하다” 등의 진실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해서 그들이 위협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자주 보상해 줘야 한다. 아동이 특정 행동을 하고 보상을 받으면 그 행동이 강화된다.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무시하면 된다. 보상에는 세 가지 개념이 있다. 첫째, 사회적 보상이다. 미소, 안아주기, 등 두드려주기, 칭찬하기, 쓰다듬어 주기 등이다. 둘째, 활동적 보상이다.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기, 만화 영화 보여주

기, 선생님과 공놀이 또는 카드놀이하기 등이다. 셋째, 물질적 보상이다. 아이스크림, 공, 돈, 책, 게임기, 옷, 학용품, 장난감 등이다. 아이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칭찬하는 것이 긍정적 행동을 강화시키는데 효과적이다. 사회적 보상이 물질적 보상보다 효과적이다.

넷째, 논리적 결과로써 말한다. 아동을 지도할 때 정중한 요청이나 ‘나 전달법’이 때때로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때에 따라서는 문제 행동을 다루면서 동시에 책임감을 교육하기 위해서 논리적 결과를 이용해야 한다. 아동이 그릇된 행동을 했을 때 그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대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논리적 결과를 고의적 보복행위와는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낙서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공놀이를 못하게 될 것이다”와 같은 비논리적인 표현은 피해야 한다. 결과가 항상 논리적으로 타당해야 효과적이다.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 방과 후 교실에 남아 못한 숙제를 하고 집에 가야 한다”라고 말해야 한다.

체벌은 안 된다, 아동중심 양육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아동중심의 양육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올바른 양육은 차별 없이 자녀의 가치와 존엄을 존중하는 것이다. 애정과 격려를 통해 자녀의 긍정적 발달을 돕는 것이다. 자녀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도록 해야 한다. 자녀의 성장과 안녕을 위해 부모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긍정적 의사소통 기술을 구사하는 동시에 자녀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아동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절히 도와야 한다. 자녀의 부적절한 행동을 가족전체의 문제로 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체벌은 안 된다. 자녀와 관련된 사항은 자녀를 중심으로, 자녀와 함께의 사결정을 해야 한다. 자녀를 존중하는 권위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자녀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질서나 규칙을 함께 선정하고, 합의해서 지켜 나가도록 도와줘야 한다. 부모의 긍정적, 낙천적, 진취적 삶의 가치들을 자녀에게 전해주는 훌륭한 모델이 돼 주어야 한다.

우리 가정은 이미 기본적인 양육 체제 안에 들어왔다고 자신하는가? 그렇다면 가정을 넘어서 이웃, 사회, 교회, 국가, 다음 세대를 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 또한 내 아이와 더불어 살아갈 내 이웃, 내 아이의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가장 무서운 범죄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이다. 이제 내 교회, 내 성도만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회가 먼저 사회를 품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 가정, 학교, 지역, 아동보호기관, 경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갖추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아동학대 근절은 지속적 관심과 성찰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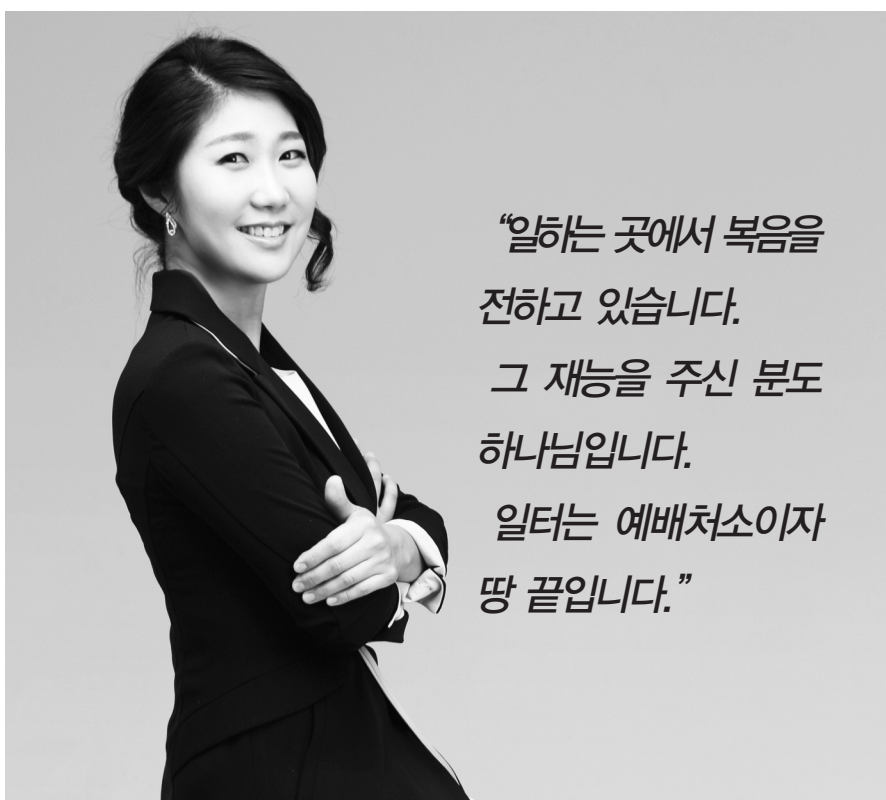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지난 14일, 목소리디자인연구소 대표 고유진 자매(요셉공동체)를 만났다. 그녀는 일반인들에게 발표, 연설, 발성, 의사소통 방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2000년 EBS교육방송 공채 리포터를 시작으로 CBS 리포터, YTN 교통전문MC, TBS교통방송 교통캐스터까지 13년 동안 쌓은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그녀가 무대공포증을 극복하도록 돕거나 전문적인 말하기 훈련을 시키는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전하는 캐스터 고유진 자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캐스터 고유진

“하나님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일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일터는 예배처소이자 땅 끝입니다.”

첫 만남부터 활력이 넘쳤다. 그녀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다. 나도 모르게 힘이 생겼다. 그녀가 주는 긍정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분명했다. 기자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다. 그녀를 만나 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한다.

그녀는 사람들이 무대공포증을 극복하도록 돕고 있다. 이 분야 전문가다. 13년 동안 방송 진행자, 교통캐스터, 앵커, 리포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살려 이 주민을 위한 의사소통 훈련, 교수법 강의, 목회자들의 말투와 억양 교정, 외교관 보이스 트레이닝 등을 하고 있다. 목소리 톤 교정, 대중 앞에서 논리적으로 말하기, 제한된 시간 내에 보고서 발표하기, 직장 내에서 올바르게 의사소통하기, 전문적 말하기 훈련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고 있다.

일하는 현장이 땅 끝이자 예배 처소

“재능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재능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도 전하고 있어요.”

그녀는 EBS교육방송 공채 리포터 1기 출신이다. 입사시험에서 수석합격 했을 정도로 유능한 인재다. 그런데 방송 일을 시작해보기 전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부모님이 그녀가 방송일하는 것을 결사반대한 것.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다. 인정받는 방송인이 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다. 공연 취재, 시사 프로그램 취재, 5분 뉴스 등 다양한 일거리를 찾아다녔다. 지방 촬영도 잦았고, 주말 스케줄도 가득했다. 주변사람들이 “일복을 타고났다”고 말할 정도로 일이 많고, 방송진행 실력도 탁월했다. 일반 열심히 한 것이 아니다. 직장 동료들을 열심히 전도했다. 또한 아무리 바빠도 주일에 배를 빼지지는 않았다. 틈나는 대로 예배를 드렸다. 방송 들어가기 전에는 찬양하고, 촬영현장에서 늘 기도했다.

“저는 문화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했거든요. 제가 일하는 현장이 곧 예배 처소라고 생각하면서 일했어요.”

지금은 가장 든든한 동역자

그녀는 스포츠 경기 진행자로도 알려져 있다. 국제 요트경기, 국제 비치발리볼 대회, 인천 아시안게임 배구경기,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아시안컵 FC서울 경기 진행 MC를 맡는 등 이력이 화려하다. 10년 이상 프로배구팀 장내 아나운서로도 활동했다. 친한 운동선수들도 전도했다. 그녀의 기도로 변화된 스포츠 선수 가정도 있다. 한 선배에게는 10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 그 선배는 그녀를 경쟁상대로 삼았다. 좋은 일거리를 가로채 간 적도 있다. 그럼에도 그 선배를 위해 10년 넘게 기도하고 전도했다.

우연히 방송 현장에서 그 선배를 다시 만났다. 그런데 그 선배의 태도가 180도 달라져 있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 물었다. 그 선배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한 순간에 사기를 당했다고 했다. 그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그녀에게 들었던 예수님이 생각났다고 했다. 예수님께 위로 받고, 회심했고, 지금은 선교사가 되었다고 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방송현장이 땅 끝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아까 그 선배처럼 처음에는 전도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결국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제가 전도한 사람들이 지금은 가장 든든한 동역자예요.”

가는 곳,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고유진 자매는 대구 출신이다.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매주 교회 가는 것이 익숙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청소년 시절에 방황을 많이 했다. 연극이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반대해서 가출도 했다. 원치 않는 대학에 입학해 ‘박물관학’을 공부했었다. 잠깐 큐레이터 활동도 했다. 하지만 방송 일을 하고 싶은 꿈을 포기할 수 없었다. 위기도 있었다. 방송 일이 좋아 한창 매진하던 시절 몸에 이상이 생겼다. 당시 그녀의 나이 27살이었다. 병원에서 면역력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잠시 방송을 쉴 수밖에 없었다. 앞진 데 달친 격으로 당시 그녀가 다니던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교회가 분열되는 아픔을 겪었다.

“당시 면역력이 떨어져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어떠한 계획도, 일도 할 수 없었죠. 다니던 교회에도 문제가 생겼었어요. 몸도, 마음도 아픈 제가 찾은 곳이 온누리교회 요셉공동체 예배였어요.”

그녀는 요셉공동체 순원들과 온누리교회 성령집회를 열심히 찾아다녔다. 쉬는 동안 영성을 회복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 선교단체 ‘예수전도단’에서 직장인영성훈련(BEDTS)도 받았다. 그러면서 영성이 자라고, 회복되었다.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훈련도 받았다.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 시작한 훈련을 받으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생활이 달라졌다. 가는 곳,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다. 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그녀의 새

로운 사명이 되었다.

또 한 번의 도전

그녀에게 비전이 무엇인냐고 물었다.

“새터민들이 남한에 내려와 살면서 의사소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의사소통 문제로 취업하는데도 제한이 많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 새터민들이 한국어를 정확하게, 능통하게 구사하도록 돕고 싶어요.”

새터민 뿐만 아니라, 목회자, 소외된 자, 자존감이 낮은 청소년들이 무대공포증을 극복하도록 돕고, 전문적인 말하기 훈련까지 병행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또 한 번 도전하는 그녀의 멋진 활약을 기대한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TBS 교통캐스터 시절.

추천해주세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코너에서는 독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공동체, 순, 사역팀 등에 신앙 생활의 귀감이 되는 리더십, 순장, 총무, 청년, 성도들을 추천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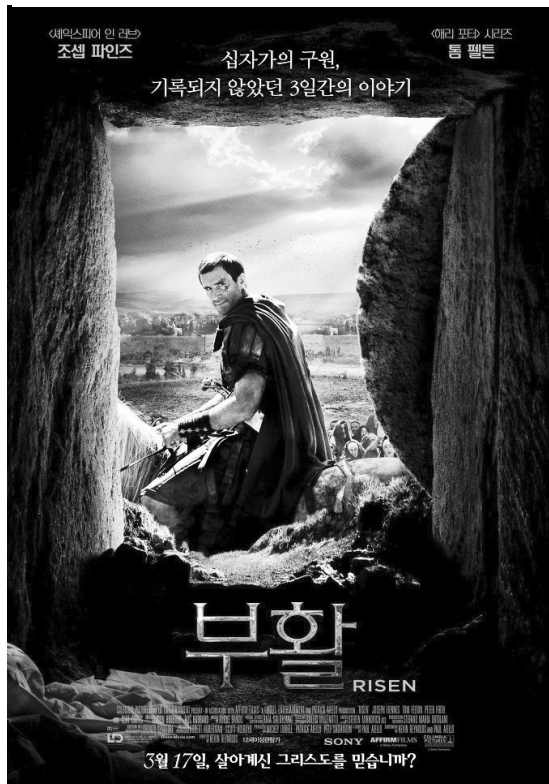
추천방법: 이메일(mirim@onnuri.org), 전화(02-3215-3197)



문화칼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3일간의 여정

고난주간에 꼭 봐야 할 영화



영화 '부활(Risen)'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걸어가신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다. 지난 17일, 예수님의 부활을 색다른 시각으로 다룬 영화 '부활(Risen)'이 개봉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기독교인이 아닌 제3자의 시각으로 다가간 영화다.

예수의 죽음과 빈 무덤, 그리고 호민관의 추적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으로 거대한 백성들 무리가 따라다녔던 예수는 유대인들에게는 물론 지배국 로마에게도 위험한 인물이었다. 대제사장 가이바와 유대인들은 로마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그를 세워 마침내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하는데 성공한다.

“저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유대인들 앞에서 빌라도는 가장 충성스러운 가이사의 신하임을 보여주고자 했고, 죄 없는 예수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다.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가 죽은 것이 확실했지만, 유대인들은 안심할 수 없었다. 그가 죽기 전부터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공언하고 다녔기 때문이다. 그의 제자들은 물론 그 이야기를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급기야 빌라도를 찾아가기에 이르렀고, 소요를 원하지 않았던 로마의 총신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장정 여섯 명이 밀어야 하는 커다란 돌문으로 무덤 입구를 막아놓았다. 그뿐 아니다. 로마 병정을 세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부활에 만반의 준비를 해놓았다.

유대인의 안식일이 지난 첫날 아침. 무덤은 텅 비워져 있었고, 예수의 시신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유대 지도자들은 빌라도를 찾아갔고, 빌라도는 곧 있을 황제의 방문을 앞두고 평화와 질서를 되찾고자 예수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호민관에게 시신을 되찾아 올 것을 명령했다.

호민관은 로마에 입성하기도 바쁜 상황에 없어진 유대인의 시신을 찾으라는 명령에 온 이스라엘의 공동묘지를 뒤집어엎었다. 썩은 시체 냄새로 가득한 골짜기를 뒤지고, 시신을 다 뒤집어 보았지만 예수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다. 호민관은 예수와 가까이 있던 사람들을 찾아내 취조하기 시작했다. 로마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벌벌 떨던 시절인지라 순조로이 취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에 관해 증언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모습에 점점 예수의 존재가 궁금해지기 시작한 호민관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저런 대답을 하게 만들었을까?”

예수의 죽음에 대한 소문들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 사람들 사이에서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훔쳐 간 뒤 부활했다고 주장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른바 시체 도적설이다. 그러나 이것은 돌문을 지키고 있던 로마 병정들이 유대 지도자들의 뇌물을 받고 퍼뜨린 거짓말이었다(마 28:11~15).

죽은 줄로 알았던 예수가 실제로는 죽지 않고, 극심한 고통에 기절한 것이라는 소문도 있었다. 이른바 예수 기절설이다. 아리마대 요셉이 발라준 올리브와 며칠간의 휴식이 그를 다시 살아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거짓말이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 숨을 내쉬고자 다리의 힘을 빌려 몸을 올리는 행위를 하면서 며칠간이나 살아있기도 했는데, 그것을 빨리 끝내고자 병정들이 다리를 부러뜨릴 때 예수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요 19:32~34).

그 외에도 예수 추종자였던 여인들이 감정에 휩싸여 밤을 지새운 뒤, 아직 어두울 때 다른 무덤을 발견하고는 예수의 무덤이라고 주장했다는 소문도 있었다(무덤 오인설). 이때 한 무덤지기를 예수로 오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해가 뜬 뒤였고(막 16:2), 늘 예수를 가까이에서 따라다니며 한결같이 섬겼던 여인들이 예수와 무덤지기를 오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호민관은 무엇을 본 것일까?

호민관은 급기야 예수와 가장 가까이 지내던 11제자를 찾아낸다. 그리고 그들의 모임을 급습한다. 과연 호민관은 시신을 훔쳐 달아난 제자들을 일망타진하고, 로마에 입성할만한 공을 세운 자가 될 것인가? 그곳에서 호민관은 예상치 못한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그는 대체 무엇을 본 것일까?

영화 '부활(Risen)'은 죽은 예수의 시신을 찾아 헤매는 로마의 군인 호민관의 숨 가쁜 추적을 담고 있다. 우리의 기대와 달리 보통 신적인 능력으로 무덤을 깨뜨리고, 화려하게 나타나신 예수님에게 중심이 맞춰져 있지 않다. 시신 더미 속에서 허덕이던 호민관이 무덤을 넘어 무언인가를 발견한다.

썩은 시체 더미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는 호민관의 거친 숨소리가 때로 너무 쉽게 “아멘”과 “할렐루야”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다. 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당신은 이미 그것을 발견하였는가? 화려한 장면도 없고, 긴 가르침도 없이 그렇게 영화 '부활(Risen)'은 부담 없이 웃음 짓게도, 눈물짓게 한다. 그렇게 3일째 아침을 맞이한다.

이민욱 목사
(찬양사역공동체)

두란노 신간

믿음은 현재진행형

〈믿음의 본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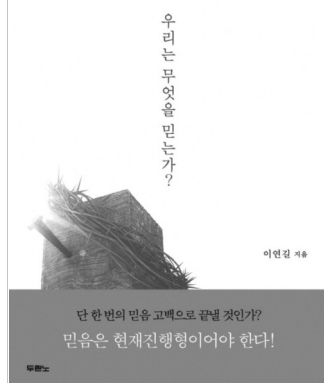
이연길 저 | 두란노 | 13,000원

“믿음이란 무엇인가?”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물음에 답을 주고자 믿음에 대해 다룬 책들이 많다. 〈믿음의 본질〉의 저자는 왜 이 질문을 다시 꺼내들었을까? 한국교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다. 저자는 한국 교회가 ‘오직 믿음’이라는 명제에 갇혀 믿음을 구원받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과감하게 지적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도 구원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질을 설파하고 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다. 단 한 번의 고백으로 구원받은 것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신선한 자극제가 될 것이다. 믿음은 현재진행형이어야 한다.

믿음의 본질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

J.D.그리어 저 | 두란노 | 16,000원

“교회 담장 밖에서도 크리스천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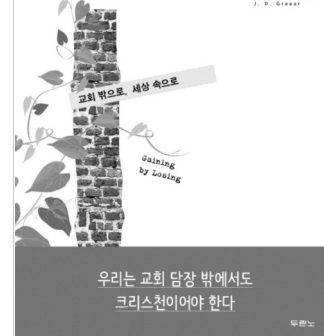
서밋교회(The Summit Church) 담임목사 J.D.그리어가 대형교회를 세우겠다는 목표로 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사역에 제동을 거셨다. 목회의 목적과 방향을 완전히 바꾸셨다. 살점이 짙이는 아픔이 있더라도 반드시 ‘다 내어주는 교회’로 재편해야 한다고 하셨다.

예수님은 창고를 얼마나 크게 늘리느냐가 아니라 씨앗을 얼마나 넓게 퍼뜨리느냐에 따라 목회의 성공을 평가하신다. 이 책의 원제 ‘Gaining by Losing’ 처럼, 교회가 잃음으로써 얻는 것들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교회활동에만 올인 하는 평신도나 아무 수고와 희생 없이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만족하는 이들에게는 교회 안에서 제자로 훈련받고, 세상에 나가 교회 밖에서도 크리스천으로 사는 사명이 무엇인지 일깨워 준다. 교회 안에서도, 바깥에서도 방황하는 크리스천들에게 권한다.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

J.D. 그리어 지음



제1091호 | 2016년 3월 20일(주일)

■ 일대일 제자양육 수료 간증



/ 진성권 성도(서대문공동체)

일대일 제자양육 과정을 반드시 수료해야 한다는 사실이 조금 당혹스러웠지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일대일 제자양육 과정이 나의 신앙을 점검받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시작하자마자 나의 이런 생각이 교만이었던 것을 알게 됐다. 내 신앙이 얼마나 허술하고, 내 위주였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내 믿음의 달음박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대일 제자양육 과정은 나의 신앙을 성숙시켰다.

한 주 한 주 일대일 제자양육 과정을 진행하면서 잘못된 습관이 있었던 나의 신앙도 하나씩 바로잡기 시작했다. 직업적 특성과 아이들 아침 준비를 핑계로 중도에 포기했던 새벽기도를 다시 시작했다. 또한 ‘순종하는 삶’을 공부하면서 나의 삶은 더욱 거룩해졌고, ‘사역하는 삶’을 공부하면서 예수를 위한 바보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즈음 기념품 제작소를 찾아가 배지를 하나 주문했다. 그 배지에 이렇게 새겨 넣었다. 나의 다짐을 웅변하는 문장이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 민망해서 눈에 잘 띄지 않는 구릿빛으

로 제작해달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런데 그곳 직원이 나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황금빛으로 배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황금색 배지는 반짝반짝 빛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새겨 넣은 문구는 눈에 정말 잘 띄었다. 황금빛 배지를 본 아내와 아이들이 만류하기 시작했다.

“아빠, 그거 달고 다닐 거야?”

“여보, 오해받을 수도 있을 텐데...”

별다른 대꾸는 안했지만 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싶었다.

“남들이 오해를 하든 말든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한 바보가 되련다!”

지금 나는 이 배지를 왼쪽 가슴에 달고 출근하고, 일하고, 귀가하고 있다. 날마다 내 왼쪽 가슴에 있는 한 문장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새롭게 다짐하면서 말이다.

사람들이 내 왼쪽 가슴에 달린 배지를 보고 “당신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라고 해주기를 소망한다. 또한 “나도 당신이 따르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라고 해주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일대일을 통해 내 신앙을 성숙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 유아세례 간증



/ 아이: 진규민 부: 진재택 모: 박수현

우리 부부는 2010년 10월 결혼했다. 아내는 일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나는 신혼생활을 마음껏 즐기는 것에 대한 꿈이 있었다. 그래서 아기 갖는 것을 미뤘다. 원하지만 하면 언제든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 걱정이 없었다. 결혼 후 2년 가까이 피임을 했다.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을 때 우리 부부는 운동을 시작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임신을 준비했다.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거기에 아내는 업무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었다. 옆친 데 댔친 격으로 내가 절친한 동생에게 사기를 당해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일까지 발생했다.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고, 사기를 당한 것에 대한 충격으로 고민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때까지도 나는 일요일에만 겨우 아내를 따라 교회를 방문하고 있었다. 당시 아내는 일을 내려놓기 시작했고, 교회를 자주 갔다. 그러면서 나에게 순예배를 드려보지 않겠냐고 권유했다. 결혼할 때부터 미뤄두었던 일대일 제자양육도 신청했다. 좋은 양육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기도 덕분에 순예배를 통해 좋은 양육자를 만났고, 따뜻하고 성

기도로 만난 규민이

숙한 믿음을 가진 순원들과 순장님, 권사님과 장로님도 만났다.

우리 부부는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믿음과 소망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었다. 아내와 나는 부모가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고, 자녀를 위한 기도도 하게 되었다. 어느 날 공동체 목사님께서 순예배 심방을 오셨다가 우리 부부에게 자녀를 달라고 축복기도를 해주셨다. 그리고 딱 한 달이 지나고 아기가 생겼다. 우리 부부는 기쁨의 눈물과 넘치는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렸다.

아내의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말을 거는 일, 기도하는 일, 아내와 찬양하는 일이 더 이상 어색하고 이상하지 않았다. 감사한 것들이 많아졌다. 아내도 나도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오랫동안 기다려준 규민이에게 고맙다. 그 시간 동안 우리 아이와 놀아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부부는 전보다 성숙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 우리 부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의 기도로 만나게 된 첫째 규민이와 지금 아내 뱃속에 있는 둘째 규림이와의 만남까지 귀한 자녀를 연달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다.

■ 온누리남성선교합창단을 섬기며



/ 강성은 성도(이수공동체)

가정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했다. 당시 <다락방>이라는 교회잡지에 실린 성경말씀을 교독하고, 찬송과 기도로 마무리하는 형식의 예배였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자주 부르던 찬양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새찬송가 559장)가 지금도 기억에 선명하다. 그러다 사춘기 시절 교회를 등지고 30년이 넘는 시간을 세상 속에서 방황했다. 2010년 다시 주님 품에 안기는 감격을 맛보고, 부족하지만 찬양사역을 통해서 쓰임 받고자 기도하고 있었다. 또 다시 삶의 분주함 가운데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이 되새되어가던 2015년 여름, 온누리신문에 실린 ‘온누리남성선교합창단원 모집’이라는 광고를 보고 잊고 있던 기도제목이 떠올랐다.

온누리남성선교합창단 입단 후 처음 몇 주 동안은 서먹함을 느꼈다. “괜히 왔나?”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로 구성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테너1, 테너2, 바리톤, 베이스로 구성된 온누리남성선교 합창단 특유의 하모니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입단 2개월 만에 열린 정기

큰 군대(軍隊)

연주회와 개인적인 일정이 겹쳐서 참여하지 못하게 됐을 때 겪은 신입단원으로서의 내적 갈등은 견디기 힘들었다.

출발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역을 하면서 달라졌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되었다. 주일 저녁 ‘9시에 뜨는 별’ 예배에서 특별한 양을 하면서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채워졌다. 주변 사람들이 ‘표정이 밝아졌다’고 할 때마다 찬양을 통해서 변화된 내 자신이 기쁘고, 대견했다. 매주 화요일 연습과 찬양사역을 하면서 이 자리가 주님 나라 확장에 동역하는 자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올 1월 진행된 필리핀 아웃리치에서 하나님께서 온누리남성선교합창단에 주일예배 말씀(겔 37:10)을 통해서 ‘큰 군대(軍隊)’라는 비전을 주셨다. 단순히 합창단의 외형적 규모를 확장하는 비전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가장 먼저 선물하셨던 공동체, 곧 가정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을 감당하는 비전이다. 이를 통해 창조질서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온누리남성선교합창단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오늘도 나는 온 맘 다해 찬양하고자 한다.

■ OBC ‘하나님의 성품’ 수료 간증



/ 이태성 성도(서누리공동체)

남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다. 또한 하나님의 실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다. 하나님의 성품과 실질을 제대로 알고 싶어 OBC(Onnuri Bible Club) ‘하나님의 성품’을 신청했다.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성품을 수강하면서 지금껏 하나님의 성품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50년이 넘는 시간동안 신앙생활을 한 나 자신에게 무척 화가 났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인 나의 성품을 인식하면서 좌절하기도 했다. 과정에 참가하는 것도 녹록치 않았다. 중도 포기할까를 고민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목사님의 간증과 진솔한 나눔, 함께 과정에 참가한 동기 수강생들 덕분에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강의실을 찾을 수 있었다. 동기 수강생들과 함께 QT하고, 배운 것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을 주었기에 중간에 포기하

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성품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그 힘으로 과정을 무사히 수료할 수 있었다.

제6과 ‘하나님은 불변하시며 신실하시다’를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모든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의로운 결정은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에 많은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멀리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OBC ‘하나님의 성품’을 수료한 것은 내 남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사건이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그 성품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의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의 삶에 적용할 때 내가 변화될 것이라고 믿는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다. 말씀이 계속 나의 삶으로 배어 나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소망한다.

장로칼럼

왜 융합선교인가?



/ 이승배 장로
(2000선교본부)

2000선교본부는 지나온 선교 30년은 지역교회와 선교단체를 융합한 선교적 교회를 도모했다면 앞으로 30년은 융합 선교를 강화한 질적 성장의 선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선교 비전과 방향을 정하였다. 사실 융합이라는 용어가 우리에게 생소하지는 않다. 하지만 도대체 융합선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왜 융합선교가 필요한지에 대해 성도들이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동안 당회 안에 설치된 선교분과위원회의 토론과 조사를 통해 온누리교회는 ‘융합선교’라는 새로운 선교의 깃발을 들었다. 개별적으로 해오던 사역을 연합하고,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선교로 나아가고자 한 것이다. 또한 분과에서는 융합선교의 가능성을 파악하며 그동안 20차례 이상 진행된 러브소나타의 방향성과 미래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한 기초연구로 한국선교연구원(KRIM)과 함께 ‘온누리교회 일본선교’를 연구하여 발표한 바 있다. 한국선교연구원 문상철 원장을 중심으로 문헌조사와 6개월에 걸쳐 국내 및 일본현지에서 107명을 인터뷰했다. 결론적으로 일본문화를 존중하는 내관적 관점(상황화 관점)과 선교사들의 공격적으로 세계관을 변형하지는 외관적 관점을 극복한 통합적 관점에서의 변형적 상황화 융합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님의 탁월한 선교적 통찰로 모달리티(Modality)인 온누리교회와 소달리티(Sodality)인 선교단체 TIM을 융합을 해왔다. 지역교회가 선교단체에 재

정적인 지원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지속적인 선교인력 동원, 선교지 방문, 협력사역을 함께한 것이다. 또한 일본 교단 및 교파를 초월한 협력을 이끌어 내며 일본 문화의 상황적 관점의 러브소나타를 시작하여, 미전도 종족 및 전방개척에 에너지를 집중해온 ‘Vision2000’이라는 변형적 선교모델과는 또 다른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는 문화와 선교를 융합한 탁월한 융합선교모델로써 일본선교지의 필요와 온누리교회의 다양한 경험과 자원을 결합시킨 변형적 상황화의 융합선교모델인 것이다.

매일 48,000명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들어간다고 한다. 또한 말라리아로 죽거나 기아로 사망하는 영아가 매일 약 10,000명가량 되며, 분쟁지역에서 살해되는 수도 한 해 32,000명이나 된다는 통계가 있다.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과 말라리아나 기아 혹은 분쟁지역 테러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겹친다. 따라서 선교지에는 복음만 가서는 안 된다.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떡과 백신이 함께 가야함을 알 수가 있다. 온누리교회 선교의 목표는 가서 제자를 삼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인적 구원에 있으므로 나가는 선교사 없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북미중심의 북반구에서 미개발국인 남반구의 선교가 아닌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의 전방위적인 선교로 바뀐 세대의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선교지에서든, 일터에서든 친구를 찾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며, 친구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적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 따라서 우리의 물질과 재능과 시간이 선교와 융합될 때 선교적 삶이 이루어지고, 융합선교의 질적 성장과 함께 선교적 교회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권사칼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 윤창숙 권사
(용산공동체)

구제 봉사팀 봉사자들이 자주 바뀐다. 그래서 새로운 봉사자들이 올 때마다 방문규칙과 봉사할 때 주의 사항 등을 새로 배운다. 그리고 나서 방문해야 할 이웃들의 이름과 주소, 지도를 받아둔다. 선물도 챙긴다.

촉촉하게 내리는 단비도 봉사하는 날에는 방해가 된다. 이날 내가 만난 이웃은 노부부였다. 할머니는 얼마 전 대장암 수술을 받았고, 할아버지는 집 앞 계단에서 넘어져 몸이 더 불편해졌다. 집이 정말 남루했다. 빗물이 벽을 타고 사방에서 흘러내렸다.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니 좋으신 것 같았다. 거기에 나와 같이 간 한의사 권사님이 열심히 침술을 발휘한 것도 한몫했다. 할머니가 기분이 좋으셨는지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또 다른 집을 방문했다. 주소는 분명 이곳이 맞는데... 겨우겨우 옥상 위에 있는 집을 찾았다. 그곳에서 눈 마주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만났다. 기가 죽어있었다. 그 아이들의 엄마는 이단에 빠져있었다. 장애인 아빠는 어깨를 다쳐 힘든 일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 안타까웠다.

소식적 한 미모 했을 법한 할머니도 만났다. 이사 준비로 분주한 할머니는 예수님이 임대아파트를 마련해 주셨다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셨다. 사업 실패로 몸도 마음도 일으키지 못하는 외아들은 그런 노모의 눈물에 가슴 아파했다. 이사 가도 주일예배에

빠지지 말라고 당부했다. 서로 축복하고 기도도 했다.

이번에는 청력도 좋고, 눈망울도 초롱초롱한 할머니를 만났다. 93세였다. 성당에서 받은 빵으로 방금 점심을 드셨다며 입술을 오물거리는 모습이 참 귀여웠다. 교회에서 준비한 진달래색 목도리를 둘러드렸다. 한 순간에 아리따운 봄처녀로 변신하셨다. 자식도, 일가친척도 없는 그 할머니는 요즘 오른쪽 다리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다니고 계신다. 걱정이 된다.

망막세포에 이상이 생겨 한 쪽 눈이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할머니는 다른 쪽 눈에도 문제가 생겨 실명 예정이라고 한다. 눈도 잘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온다고 식혜를 만들어 놓았다가 내놓으셨다. 눈물을 삼키며 그 식혜를 마셨다. 맛있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니 참 좋아하셨다. 눈이 불편해도 봄이 오면 바깥에서 운동을 하시겠다고 하셨다. 이렇듯 이웃들을 돌보고 돌아오는 길에는 어김없이 기도하게 된다. 내가 만난 이웃들의 평안과 건강을 위해서 말이다. 예수님께 그들의 삶을 의탁하고 있다. 구제봉사팀에서 섬기면서 인생의 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고 있다. 나뿐 아니라 구제봉사팀 모두가 그것을 깨닫고 있다. 오늘도 구제봉사팀에서 섬기는 일꾼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더 많은, 젊은 성도들이 왔으면 좋겠다.

문의: 서빙고 구제봉사팀 02-3215-3436
윤창숙 권사 010-6226-4753



✍ 기고 김혜영 권사(양천공동체)

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키비 IBS 스쿨’에 등록해 공부한 것 자체가 간증이라고 생각한다. 2011년 아세르 인트레이트 목사가 온누리교회에 와서 집회를 한 적이 있다. 당시 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게 됐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문자 그대로 중동지역, 이스라엘 국가를 의미했다.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이 곧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이라고 말해 주는 곳이 없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올 때마다 그저 묵상하고, 적용했을 뿐이다. 당시 집회 기간 내내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했다. 그 기쁨은 한 해가 다 가도록 사그라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이웃리치로 이끄셨고,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도록 인도하셨다.

그러나 한해 두해 지나면서 사역이 바쁘다

는 핑계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는 날이 생겼다. 이스라엘을 향한 비전이 소원해지기 시작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는 이제 그만해도 되겠죠?”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가 잊혀져갔다.

시간이 흘러 2014년,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열린 러브소나타 집회에 참석했다. 행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30여 명의 중보자들과 중보기도실에서 일본현지교회 사모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그 간증이 나를 변화시켰다. 그 사모님이 골방에서 기도하던 중에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했다. 그 사모님의 간증이 내게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렸다.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그만해도 되죠?”라고 했던 나의 물음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기도해야 한다”라고 응답해주시는 순

간이었다. 나는 하염없이 눈물 흘리며 회개와 통곡의 기도를 드렸다. “다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리로 나아가리라”고 굳게 결심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나를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깨닫게 하셨다.

한번 끊은 것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다.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2년이 지나고 올해 키비 IBS 스쿨에 등록했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기도모임에도 참석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배우지 않았더라면 나의 신앙은 반쪽이었을 것이다. 늘 성경을 읽어도 선지서가 풀리지 않았고, 계시록도 어려웠다. 항상 성경이 어려웠지만 송만석 장로님의 희년법 강의는 귀에 쏙쏙 들어왔다. 단박에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해줬다. IBS 과정에 참석하는 동안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다. 5년 전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을

처음 품었을 때의 마음과 같았다.

당장 이스라엘로 달려가고 싶다.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비전을 품도록 도와준 온누리교회와 KIBI가 참으로 귀하고 고맙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7주 동안 열정을 다해 섬겨주신 조장님과 함께한 조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이스라엘을 향한 비전이 한국교회와 열방교회 가운데 하루 속히 전해지기를 기도한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하는 백성이 되도록 찬양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당장 이스라엘로 달려가고 싶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감옥이 열리고 구원이 임하다

그것이 찬송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일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모르지만 찬송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적 영성이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여줬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간수의 회심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마 5:11~12).

고난이 없는 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더 큰 복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끝나는 축복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의 기둥이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고랑들이 풀렸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사도 바울과 실라는 도망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도의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죄수들이 탈옥하면 간수는 죽음이었습니다.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순간 사도 바울이 막았습니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부리나케 달려 들어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29~30절).

간수가 갑자기 질문을 하는 것은 당황스러운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분명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신비입니다. 그러나 회심의 역사는 오랜 시간이 있어야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강도도 구원을 간청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자신의 죽음을 막아주는 모습 속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받을 처벌을 두려워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구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자신이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자신의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망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영혼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도 필요합니다.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그와 그 온 집안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31~32절).

여기서 ‘내 집’이라는 말은 ‘오이코스’라는 헬라어입니다. 혈육적인 가족만이 아니라 그 집안에 사는 모든 이들을 가리킵니다.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자신 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까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동적인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영향력이 있습니다. 진실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면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감옥의 간수가 세례 받고, 집안사람들도 구원받게 하고, 세례 받게 했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간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 부위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그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

접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33~34절).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씻겨줬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를 씻겨주는 동시에 자신의 죄도 씻음을 받았습니다. 간수가 죄수들로부터 구원받고, 온전해졌습니다. 루디아, 귀신 들렸다 자유케 된 어린 소녀, 감옥의 간수가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종도 다르고, 사회적 배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삶의 수준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 되어 아름다운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 새로운 사회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차이와 장벽을 넘어서 하나 되게 합니다. 최악의 상황에 있었던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대반전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놀라운 반전으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복음의 능력을 세상이 막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상황을 바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살아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바울과 실라의 믿음과 영성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가로막으려 했던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능력 있게 증거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치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선교사가 보낸 편지



손충성, 송이레 선교사
(중동A국)

집 앞 나무에 새순이 돋고, 꽃이 피기 시작했다. 이곳은 한국보다 조금 더 빨리 봄이 찾아오는 것 같다. 따뜻한 봄별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 사역에 임하기를 기도한다.

이곳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말 자체적으로 개최한 수련회 ‘인 인카운터 집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 그 수련회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혔다. 25살 G자매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주님 앞으로 나왔다. N자매는 마흔이 넘도록 이슬람이 진리라고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코란과 모하멧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오랜 습관과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만

이 진리이며 구원자라고 고백했다. 그녀는 집에 돌아가서 숨겨놓았던 코란과 이슬람 관련 책들과 물건들을 모두 버리고 딸에게도 예수님이 진리라고 간증했다. 지금은 N자매의 딸 E자매를 위해 모두가 기도하고 있다. E자매가 어머니의 간증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이슬람이 진리라고 말해놓고 어떻게 지금 와서 돌아갈 수 있냐”며 너무 혼란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E자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이 비취지도록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중보기도해줬으면 좋겠다.

교회 청년들에게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새해 첫날을 말씀으로 시작하자면서 형제들이 모여 창세기부터 통독하기 시작했다. 새벽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다들 말씀에서 오는 즐거움으로 피곤함을 이기고, 직장에 출근했다. 매일 1일 저녁에 모여 통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청년들에게 일어난 말씀에 대한 사랑이 계속되고, 삶으로 열매 맺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다. 주중 기도모임을 하면서 나쁜 습관들을 고쳐나가고 있다. 특히 담배를 끊자고 서로 격려하고 있다. 담배를 피울 때마다 벌금을 내자면서 금연을 돕는 모습이 참 기특하고 아름답다. 또한 형제들이 교회 축구 리그를 통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금까지 패배 없이 강

팀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즐거움도 감사하지만, 함께 유니폼을 준비하고, 땀 흘리며 한 팀이 되어가는 기쁨이 더 크다.

그들이 앞으로도 세상 풍조에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이곳을 위한 더 많은 중보기도를 부탁한다.

